

사람은 참삶을 통해 사랑이 된다

| 김흥호 |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의식'이 우주의 흐름을 어떻게 경험하는지가 보입니다. 영어의 Life(삶)와 Love(사랑)가 같은 어원을 지니고, 한글의 '사람'과 '삶'과 '사랑'이 유사한 하나의 맥에 닿아 있음을 통해 그것을 봅니다(편집자 주).



사람이 멍치면 삶이 되고, 삶이 터지면 사랑이 된다. 애벌레가 멍치면 고치가 되고, 고치가 터지면 나비가 된다. 자아가 통일되면 자연이 되고, 자연이 해탈하면 자유가 된다. 인생은 땅을 헤매다 땅에 빠져 지옥을 경험하고, 하늘을 쳐다보며 천국을 그리워한다. 이때에 땅에서 하늘을 이어주는 높은 동산 위에 우렁찬 나무가 생명나무다. 생명의 푸른 나무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봄이 오면 싹이 트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즐거움을 굳힌다. 봄이 오면 또 싹이 트고 꽃이 피며, 여름이 오면 또 나뭇잎이 대지를 덮고, 가을이 되면 또 열매가 열리고, 겨울이 되면 또 가지를 굳히고, 봄이 오면 또 피어오른다. 자연은 영원한 불이며 태양처럼 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한다. 자연에는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는 참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 봄도 아름답고, 가을도 아름답고, 겨울도 아름답다. 자연이 이토록 아름다운 이유는 자연에는 내가 없기 때문이다. 자연은 흰빛을 통기며 피어오르는 흰 불 같다. 거기에는 아무런 연기가 일지 않는다. 훤히 타는 흰 불에 내가 날 이치가 없다. 그저 빛이요 열이요 생명뿐이다. 그러기에 자연은 참되고 무한히 아름답다. 자연의 참됨에는 자아가 없다. 봄은 내 봄도, 네 봄도 아니다. 봄에는 내가 없다. 하늘도 내 하늘도, 네 하늘도 아니다. 하늘에도 내가 없다. 아름다움도 내 아름다움도, 네 아름다움도 아니다. 아름다움에도 내가 없다. 봄만 그런 것이 아니다.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그렇다. 하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땅도 물도 불도 그렇다. 아름다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참도 좋음도 깨끗함도 그렇다. 자연은 나 없는 무아의 세계다. 자아의 지옥에서 헤매던 사람은 무아의 연옥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으면 대아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기독교는 오래 전부터 무아의 봄을 노래 부르고, 무아의 여름을 기도드리고, 무아의 가을을 말씀으로 보고, 무아의 겨울을 설교로 고백한다. 찬송은 봄노래요, 기도는 여름의 기원이요, 성경은 가을의 말씀이요, 설교는 겨울의 고백이다. 찬송 속에는 내가 없고, 기도 속에도 내가 없고, 성경 속에도 내가 없고, 설교 속에도 내가 없다. 있으면 모두가 있고, 하나님이 계실 뿐이다. 찬송은 누구의 찬송도 아닌 진심이요, 기도도 누구의 기도도 아닌 진정이요, 성경도 누구의 성경도 아닌 진리요, 설교도 누구의 설교도 아닌 진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 설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 받는 것이 성령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 부르는 것이 찬송이다.

사람은 찬송, 기도, 성경, 설교의 춘하추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아가 된다. 무아가 되지 않으면 연옥의 문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연옥의 문에는 문짝이 없다. 죄 사함을 얻고 무아가 되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다. 예배는 소아가, 대아가 되기 위해서 한번 건너가야 하는 무아의 다리다. 이 다리를 건너가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찬송과 기도와 성경과 설교가 거듭되어 왔다.

사람은 살아서 사랑이 된다. 사는 것이 자연이요, 사는 것이 예배다. 그 가운데 희열에 넘치는 찬송이 있고, 눈물의 바다를 이루는 참회가 있고, 진리를 동경하는 맑은 사색이 있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장엄한 고난이 있다. 사람은 일생도 예배요, 일 년도 예배요, 하루도 예배요, 한 시간도 예배다. 예배는 무아의 경험이요, 대아로 가는 다

리요, 사랑으로 인도하는 삶이다. 사람은 삶을 거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이다. 애벌레가 고치를 거쳐 나비가 되고, 자아가 자각을 거쳐 자유가 되고, 소아가 무아를 거쳐 대아가 되듯이 사람은 예배를 거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나무가 자라서 낭기가 되듯 사람은 참삶을 통해서 사랑이 된다. 사랑은 곧 하나님이다. 참삶은 그리스도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 참삶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들이 된다. 더러운 물이 고요하게 가라앉아 맑은 물이 되듯이 사람은 삶을 통해 사랑이 된다.

(끝) 

- 이 글은 '김홍호 사상 전집-사람 삶 사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홍호** | 다석 유명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항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

빛 힘 숨(십자가 부활 승천) 요한복음 강해 (전5권) 세트



김홍호 저 | 사색 刊 | 56,000원

〈김홍호 사상 전집〉 제8권~12권이 출간 되었다. 이번 책은 『빛 힘 숨: 십자가 부활 승천』의 제목을 가진 요한복음 강해 다섯 권이다. 이 책은 일러두기에 소개된 것처럼 21장 81절로 구성되어 있다. 21장은 요한복음의 21장이며 81절은 81회의 강의를 말한다.

이 책은 저자 김홍호 선생이 1993년 3월 7일부터 1995년 6월 25일까지 이화여대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강의했던 것으로 총 2년 반, 다섯 학기 동안 해온 81회의 강의들이다. 이 강의를 학기 별로 나누어 전5권으로 출간하였다.



김홍호 사상 전집

기독교 설교집 세트(전6권) (CD 1장 포함)

김홍호 저 | 사색 刊 | 40,000원

저자의 강의와 설교 등을 모아 총6권으로 엮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애다가 풍부한 비유를 곁들여, 자신이 얻어낸 실천과 깨달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절묘하게 전달해온 저자가 펼쳐온 삶의 철학을 이어나간다.

(구성) 제1권 사람 삶 사랑, 제2권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 제3권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4권 믿음의 힘, 제5권 하루를 사는 사람, 제6권 영원을 사는 사람

김흥호 선생의

마음을 밝히는 책들



주역강해 1, 2, 3

도서출판 사색 刊 / 각 권 15,000원

역경은 짐치는 책이 아니다. 우주의 원리와 인생의 윤리를 알려주는 책이다. 이 책은 김흥호 선생이 매주 일요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한 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글로 옮겨 정리한 것이다. 강의교재는 '원본집주 주역'(명문당)을 사용했다.

서양철학 우리 심성으로 읽기

1. 철인들의 사상 / 2. 실존들의 모습 / 3. 문학속의 철학



도서출판 사색 刊 / 각 권 12,000원

이 책은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플라톤, '에티카'의 스피노자, '순수이성비판'의 칸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니체, '존재와 시간'의 하이데거 등 서양철학의 철인들과 그 사상에 관한 신학자 김흥호 선생의 작품을 모은 것이다. 서양철학을 우리의 심성으로 이해하고 읽어간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원각경강해

도서출판 사색 刊 / 12,000원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불경으로 알려진 원각경에 대해 김흥호 박사가 1999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 학기 동안 이화여대에서 강의한 내용을 녹취하여 편집했다. 원각경 원문을 손수 발췌 요약하여 보충설명을 하고 다른 불경 가운데서 인용한 것을 첨가하는 방식을 취했다. 부록으로 고린도서 주해가 실려 있다.



법화경강해

도서출판 사색 刊 / 15,000원

저자가 2000년 3월 부터 2000년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한 시간씩 법화경을 강의한 내용을 녹음하여 글로 옮겨 정리한 것. '서품'부터 '보현보살권발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